

대·중견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41개사 역대 최대

동반성장지수, 214개사 평가 결과 우수 62곳, 양호 73곳, 보통 23곳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표 신설

214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41개사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스, 텐스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심텍, 에스트라오 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 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SNT모티브 9개사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41개사를 비롯해 ‘우수’ 62개사, ‘양호’ 73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9개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동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표를 유예



1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오영교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동반성장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했다.

‘최우수’ 등급 41개사에는 ‘우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3개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를 받아 명예기업에 오른 기업은 다음 연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최우수’로 인정하고,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가운데 ‘최우수 명예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12년 연속으로 가장 높

은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9년), LG화학(8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7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6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5년), DL이앤씨, 삼성물산(건설부문),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4년),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파리크라상, 현대위아, GS건설(3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공표시 등급

별 대·중견기업을 구분해 공표한 결과 대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급 비중이 매우 높았다”면서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을 많이 받아 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동반위 역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표대상 214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2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통신(92.41)과 광고(83.9)가 80점을 넘으며 상위권을 차지했고, 제조업(62.18)과 식품업

(63.94)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총 100점인 동반성장 종합평가는 거래 중소기업의 체감도조사(70점)와 대기업 실적평가(30점)를 각각 합산해 산출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년도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1·2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 지수를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내년에 공표하는 ‘2023년도 평가’에선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를 신설·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 이하 자율규제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유봉석(왼쪽부터)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과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최남철 연세대 교수, 권현영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 손지운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LG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 EPD 인증 획득

글로벌 가전업체 냉장고 중 최초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가 지난 14일 글로벌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인증 ‘인터내셔널 EPD’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가전업체의 냉장고 중 첫 인터내셔널 EPD 인증이다. EPD는 제품의 생산, 운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표시하는 제도다.

EPD 홈페이지는 국제 규격에 따라 측정된 제품의 환경 영향 수치를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터내셔널 EPD를 획득한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LG전자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소업체, 국세청에 18건 세정지원 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김정장 초청 간담회 김기문 회장 “소통창구 마련하자” 김정장 “도움되는 세정환경 조성”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유후자금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내국 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적극 반영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KT ‘디지털인재 리더스 클럽’ 1호 선정

KT는 정부로부터 디지털 인재 양성 기업으로 인증받아 ‘디지털인재리더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리더스 클럽은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혁신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미래 사업

을 이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정 설계-교육-채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번 2023년 리더스 클럽에는 디지털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인 국내 다수 기업이 도전한 가운데 KT를 포함한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가스 관계사와 현혈 캠페인

SK가스는 SK디스크버리 및 산하 3개 관계사와 함께 현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혈 캠페인은 오는 18일까지 판교에 위치한 SK디스크버리, SK가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현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혈증서를 기증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